

助詞 ‘도’의 意味機能에 대하여

申 智 妍*

1. 序 論

現代國語의 助詞는 意義 要素에 添加되어 文法的 關係나 狀況文脈의 인 意味를 나타내 줌으로써 그 요소의 쓰임을 限定시켜주는 附屬形式으로, 國語를 다른 언어와 뚜렷이 대비시켜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진 文法範疇이다. 助詞는 국어에 많지 않은 虛形式으로서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지만, 省略이 가능하다는지 被接語로부터 분리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는지(책이—책만이) 하는 등의 特性을 가지기도 하므로 屈折語尾와 같은 순수히 통사적인 요소로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助詞는 屈折語尾나 單語나 的 범주 규정에 있어 경제적인 문법범주이지만, 依存形式임에도 그 分離性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굴절어미이기보다는 單語에 가깝다고 생각되어 왔다. 이와 같은 國語 助詞의 特性은 Ullmann (1957)이 규정하고 있는 不變化詞 또는 擬似語의 特性과 유사하다. Ullmann (1957)¹⁾은 語彙意味論(語義)과 統辭意味論을 명백히 구별한다. 代名詞, 冠詞, 接續詞, 前置詞, 助動詞 및 어떤 類의 副詞에 해당되는 不變化詞들은 實質語와는 구별되는 통사적 요소로서 어휘적 의미는 가지지 않고 關係的 意味(relational meaning)만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수한 통사적인 요소들을 ‘單語’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히 誤稱이지만, 다른 단어들처럼 文脈에서 분리됨으로써 自律性을 가지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 국어국문학과 4년

1) 南星祐 번역, 意味論의 原理(1981, 塔出版社), pp. 61~66.

보면 많은 불변화사들이 實質語에서 파생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擬似語(pseudo-word)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어의 助詞는 통사기능을 담당하는 格助詞와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特殊助詞로 흔히 나뉘어져 왔다. 국어의 특수조사는 순수히 文法的인 기능만을 갖는 虛形式으로서의 ‘통사적 요소’의 특성과, 독자적인 뚜렷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분명히 의미를 제한해주는 ‘의미요소’로서의 특징을 함께 가짐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특수조사는 체언 이외에 용언, 부사 아래에도 연결될 수 있고, 어느 한 가지 格(case)만을 담당하지는 않으며 語源的으로 實質形態素에서 轉成·派生되어 어느 정도의 語彙의 의미를 갖는다는 특징들을 갖는다. 실제로 국어 특수조사의 형태론적, 어휘론적 위치를 상정할 때 이들을 완전한 虛辭의 자리에 둘 수 없는 것도 이같은 準實辭的 성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Ullmann 이 말하는 不變化詞나 國語의 助詞는 單語印象(images of words)은 갖지 않으며 ‘현실화된, 즉 脈絡화된 단어’로서 존재할 뿐이다. 즉, 어휘적 의미는 갖지 않고 關係의 의미만을 갖는다. 脈絡에 완전히 依存하는 適用的 移動에 따라 여러가지 관계적 의미를 가짐으로써 機能 差異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助詞의 意味는 實辭의 경우에서처럼 이름과 뜻 사이의 喚起 關係를 가지지 않는다. 文章 안에서 갖는 機能에 의해서 그 意味가 分析될 수 있는 助詞는 일종의 機能語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국어 特殊助詞 ‘도’의 意味機能을 그것이 나타나는 脈絡 속에서 살펴보려 한다. ‘도’가 가진 自律性, 즉 일정한 방향으로 意味制限을 하는 의미요소로서의 특징을 그 基本的 意味로 인정하고 그것을 ‘亦同’의 의미기능으로 본다. 그 이외에 조사 ‘도’가 가지는 여러 의미기능들이 脈絡, 즉 그것이 나타나는 環境의 여러 특성에 의해 규정됨을 보일 것이다.

2. 本 論

2.1. ‘亦同’의 意味機能

助詞 ‘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基本的인 의미는 ‘亦同(also)’이다. ‘도’는 姊妹項目(또는 姊妹文章)을 상정할 수 있을 때, ‘도’가 연결된 요소 또한 그것에 함께 포함됨을 나타낸다. 이때, 자매 항목은 文章內에 있든가 話行上의 前提에 존재해야 한다.

- (1) 배뿐 아니라 사과도 과일이다.
- (2) 너는 사과도 좋아하니?

(1)에서는 ‘배’가, (2)에서는 사과 외의 다른 음식이 자매 항목으로 想定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亦同’의 의미는 ‘도’가 환경적 요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기본적으로 갖는 의미이다.

2.2. ‘極端提示’의 意味機能

‘도’가 가진 ‘亦同(also)’의 의미가 확대되어 ‘極端提示(even)’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은 이미 言及된 바 있다(Yang, 1973). ‘도’가 亦同의 의미기능을 갖느냐 極端提示의 의미기능을 갖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도’가 연결되는 요소의 의미자질의 특성으로서 그 被接語의 極性(polarity)을 상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다. 極性は 語辭에 固有한 것일 수도 있고 話行上의 前提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極端提示의 의미를 갖는 ‘도’는 [±pole]의 意味資質을 가진 ‘까지’, ‘조차’, ‘마저’ 등에 亦同의 의미를 가진 ‘도’가 결합된 형태, 즉 ‘까지도’, ‘조차도’, ‘마저도’ 등에서 ‘까지’, ‘조차’, ‘마저’가 수의적으로 생략된 형태로 보인다.

- (3) a. 말단직원들조차도 해고되었다.
 b. 말단직원들도 해고되었다.
 (4) a. 용돈까지도 주었는데 불평을 하다니.
 b. 용돈도 주었는데 불평을 하다니.

우리는 (3), (4)의 문장들을 a,b의 意味差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3) b, (4) b에서의 ‘도’는 {‘極端提示’ + ‘亦同’}의 構成을 가지지만, 形態上으로는 ‘亦同’이, 意味上으로는 ‘極端提示’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의 의미기능이 被接語의 의미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이다.

2.3. ‘讓步’의 意味機能

이제까지 이루어진 助詞 ‘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言及된 바 없는 ‘도’가 가진 ‘讓步(even though)’의 의미기능을, 한 文脈內에서의 경우 (§2.3.1)와 接續에서 接續語尾에 연결될 경우 (§2.3.2)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讓步’라는 術語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even though)’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즉, 제시된 사실에 대한 否定的인 상황의 含蓄을 의미한다.

§.2.3.1. 極語形成機能

‘도’가 연결되는 요소의 極性이 인정될 때 ‘도’가 極語形成機能을 한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이환목, 1982).

- (5) a. 철수는 가장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
 b. *철수는 가장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없다.
 (6) a. 철수는 가장 쉬운 문제도 풀 수 없다.
 b. *철수는 가장 쉬운 문제도 풀 수 있다.

(5)에서 ‘도’는 否定性的의 極性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결합되어 否定極語를 형성한다. 이때, ‘도’에 의해 형성된 이 부정

극어는 (5)a와 같은 ‘-풀 수 있다’는 肯定文脈에서만 쓰일 수 있다. 否定의 文脈에서 否定極語는 쓰이지 못하며 따라서 ‘도’가 否定文脈에서 否定極語를 形成하며 쓰일 수 없다. (6)의 경우는 반대로 ‘도’가 肯定文脈에서 肯定極語를 形成함을 보여준다. 非文이 아닌 (5)a, (6)a의 文章들은 ‘도’에 의해 각각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도로 해석되는 讓步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2.3.2. 接續에서의 경우

어떤 接續語尾에 ‘도’가 연결될 때, 첫 conjunct(接續되는 文章)와 다음 conjunct가 順理로 연결되지 않고 逆理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讓步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논의에서는 (7)의 文章들에서 나타나는 ‘-더라도’, ‘-(으)리더라도’, ‘-어도’, ‘-라도’ 등의 接續語尾들은 제외하기로 한다.

- (7) a. 땅이 무너지더라도 버티겠다.
 b. 빌어먹을지라도 너에게는 부탁을 하지 않겠다.
 c. 옷에 묻은 그 때는 삶아도 지지 않는다.
 d. 그런 것쯤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이들 語尾에서 보여지는 ‘도’는 語源的으로는 우리의 論議 대상이 되는 助詞 ‘도’와 同類일 것으로 생각되나, 通時的으로 융합되어 버린 형태로 보여진다.” 또한 現代國語에서는 이들 語尾에서 ‘도’없이 나타날 수 있는 “*—더라”, “*—(으)리더라”, “*—아”, “*—라” 등이 接續語尾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形態素 分析 기준인 統合關係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語尾에서 나타나는 ‘도’는 하나의 獨立된 形態素로 分析

- 2) 이들 어미들을 許雄(1975: 563)에서는 不拘法 또는 양보법이라 하여 ‘도’를 분리하지 않고 있다.

不拘法(양보법): 앞의 사실을 긍정하기는 하나 뒤에 否定的인 사실을 함축하는, 제약법과 반대되는 뜻을 가진 이음법,

될 수 없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도’가 독립된 하나의 형태소로서 접속어미에 결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도’와 결합될 수 있는 접속어미들은 다음과 같다.³⁾

- I. { 시간적羅列形語尾(崔鉉培)
 { 說明語尾(정인승)
 { 行爲連續接續詞(梁續錫)
- ① ‘-면서’
 ② ‘-고서’
 ③ ‘-어서’⁴⁾
 ④ ‘-는데’
- II. ⑤ ‘-다가’ (중단형)
 ⑥ ‘-는지’ (의심)
 ⑦ ‘-(으)르시’ (추추의심)
 ⑧ ‘-(으)려고’ (의도형, 의향)
 ⑨ ‘-어서’ (사실구속형, 원인)

I로 분류된 語尾들에 ‘도’가 연결될 때, ‘도’가 가진 讓步의 의미 기능이 추출된다. ①~④의 語尾를 포함하는 文章들을 (8)~(11)에서 보인다.

- (8) a. 그 그림의 가치를 인정을 하면서, 사 두려고 하였다 [사 두려고]하지 않았다.
 b. *그 그림의 가치를 인정을 하면서도 사 두려고 하였다.

3) ①~⑨의 語尾들에 대한 意味分析의 證據는 高永根(1975)참조. 한편, 梁續錫(1972)에서는 ①~④의 ‘행위연속접속사’에 ⑤ ‘-다가’까지 포함시킴.
 4) 여기에서의 ‘-어서’는 양인석(1972)에 따르면 첫 conjunct가 다음 conjunct의 예비수단(pre-step means)을 이룰 때 쓰이는 것으로서, ⑨ ‘-어서’ (사실구속형: 원인)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③ ‘-어서’를 포함하는 다른 例文으로는 “손잡이를 돌려서 문을 열었다.”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경우 ‘손잡이를 돌린’ 행위는 ‘문을 열기’ 위한 예비수단이 되며, 예문(10)에서 ‘도’를 뺀 문장(“그 아이를 때려서 그 버릇을 고쳤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때린’ 행위는 ‘버릇을 고치기’ 위한 예비수단이 된다.

- c. 그 그림의 가치를 인정을 하면서도 사 두려고 하지 않았다.
- d. 그 그림의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 두려고 하였다.
- (9) a. 평양까지 가고서, 혈육을 만났다. [혈육을 만나지 못했다.]
- b. *평양까지 가고서도 혈육을 만났다.
- c. 평양까지 가고서도 혈육을 만나지 못했다. (南北離散家族 상호방문 新聞記事에서)
- d. 평양까지 가지 않고서도 혈육을 만났다.
- (10) a. (그 아이를)때려서, 그 버릇을 고쳤다.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 b. *(그 아이를)때려서도 그 버릇을 고쳤다.
- c. (그 아이를)때려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 d. (그 아이를)때리지 않고서도[?않아서도] 그 버릇을 고쳤다.
- (11) a. 그 일은 전문가가 했는데, 잘 되었다. [잘 되지 않았다.]
- b. *그 일은 전문가가 했는데도 잘 되었다.
- c. 그 일은 전문가가 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다.
- d. 그 일은 전문가가 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었다.

위의 예문들에서, ‘도’는 否定 文脈에서든(c의 문장들), 肯定 文脈에서든(d의 문장들) 앞 뒤 conjunct가 讓步의 의미 관계에 의해 연결될 때에만 앞 conjunct에 연결될 수 있다.

여기에서, “‘도’가 가진 讓步의 의미기능”이란 말이, 양보의 의미와는 무관한 接續語尾가 ‘도’에 의해 양보의 의미로 적극적으로 轉換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는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本稿에서의 論議는 ‘도’가 문장의 접속을 양보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도’가 讓步의 文脈에서는 자유롭지만 양보가 아닌 문맥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문장들이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接續語尾와 ‘도’와의 결합에서 ‘도’가 가지는 양보의 의미기능이 추출됨을 보이교자 하는 것이다. (8)에 나타난 상황에서 살펴본다면, 그림의 가치를 인정할 때에 그것을 사려고도 혹은 사지 않으려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 ‘도’가 연결되면 양보의 방향으로 의미 해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즉, (8)~(11)의 例文에서, a의 문장들에서와 같이 ‘도’가 결합되지 않은 때에는 앞 conjunct가 中立的인 의미를 가

따라서 肯定的 conjunct가 연결되든 否定的 conjunct가 연결되든 非文法的인 文章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 conjunct에 ‘도’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讓步의 뜻을 가지게 되는 文脈에서만 문장이 살아 남는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의해 앞 뒤 conjunct가 逆理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10)의 語尾 ‘—어서’를 原因을 나타내는 사실구속형어미 ‘—어서’와 분명히 구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10)a를 다른 번호를 붙여 例示해본다.

- (12) a. (그)아이를 때려서 그 버릇을 고쳤다.
 b. *(그 아이를) 때려서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12)a.b에 나타난 어미 ‘—어서’는 둘 다 ③의 時間的羅列形語尾이다. 이를 ④의 事實拘束形語尾로 보면, (12)b는 때렸기 때문에 오히려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非文法的인 문장이 아니다. 실제로 (12)b를 집할 때 ‘—어서’를 ③ ‘—어서’로 파악하고 非文法的인 문장이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同一形態를 각각 다른 범주로 묶는 방법론이 갖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한다.

한편, 接續의 경우에도, 하나의 文脈內에서 ‘도’가 極語形成을 하는 경우 (§2.3.1)와 마찬가지로, ‘도’가 연결되는 요소의 極性이 인정되어야만 ‘도’가 양보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 接續에서 ‘도’가 연결되는 요소란 물론 앞 conjunct 전체이다. 따라서, 文脈內에서 ‘도’가 연결되는 conjunct의 極性を 想定할 수 있는지의 與否가 문제된다. (8)에서 그림을 사는 행위에 있어 關鍵이 되는 것은 그 價値(그것이 어떤 가치이든)의 認定與否일 것이다. 일단 ‘가치가 인정된’ 경우에는 極性이 상정된다. (9)의 경우에서도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산 가족에게 상봉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위는 平壤에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0)에 있어서도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때리는’ 것이었으리라고 이해된다. (11)의 경우에도, 무슨 일이든 ‘전문가가 한다는 사실’에

서 우리는 極性을 받아들일 수 있다.

Ⅱ로 분류된 ⑤~⑨의 語尾들에 ‘도’가 결합될 때에는 ‘도’가 양보의 의미는 갖지 않고 단순히 ‘亦同’이나 ‘強調’의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例示하면 (13)~(17)과 같다.

- (13) a. 날씨가 좋아지다가 호려진다.
b. 날씨가 좋아지다가도 호려진다.
- (14) a. 그가 어제 그곳에 갔었는지 모르겠다.
b. 그가 어제 그곳에 갔었는지도 모르겠다.
- (15) a. 비가 올지 모르겠다.
b. 비가 올지도 모르겠다.
- (16) a. 나는 그냥 가버리려고 했었다.
b. 나는 그냥 가버리려고도 했었다.
- (17) a. (출기도 하지만) 시간이 늦어서 가야겠다.
b. (출기도 하지만) 시간이 늦어서도 가야겠다.

2.4. 強調機能

‘亦同—極端提示—讓步’의 발전적 의미 기능 이외에 ‘도’가 가진 중요한 기능으로서 強調機能을 들 수 있다. 그런데, 強調는 音의 高低, 強勢 등의 超分節音素나 語調에 의해서도 表示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特定 語辭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도’가 가진 강조의 기능은 ‘도’의 고유한 기능이라기보다는 副次的 기능으로 봄이 알맞을 것이다. 한편, ‘도’의 강조기능은, 현대국어에서 特殊助詞로 분류되는 문법범주가 通時的으로, 意味의 添加·補助 내지 限定 기능을 가지는 옛 後置詞나 添詞에서 발달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지는 特質인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도’는 특수조사 중에서도 가장 쓰임이 많은 助詞의 하나이다. ‘도’는 관형사, 감탄사 이외의 거의 모든 品詞, 즉 代名詞, 數詞, 動詞, 形容詞, 副詞 등에 연결될 수 있으며, 조사끼리의 결합에 있어서도, 거의 맨뒤의 위치에서 활발한 복합조사의 형성을

보인다. (에서부터도, 까지나마도, 한테서조차도, 로부터까지도, …….) 이러한 사실들은 ‘도’가 특수조사 중에서도 그만큼 첨사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助詞 ‘도’는 특히 副詞의 성격을 가진 被接語에 연결될 때, 강조의 기능을 가지는데, 이때 ‘도’가 가지는 강조기능은 피접어인 副詞語가 修飾言이기 때문에 말미암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수식언에 감정적 부가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A. 「부사+도」

- (18) 아마도 내년엔 이루어지리라.
 (19) 우연히도 그것과 일치했다.

B. 「부사형 語尾+도」

- (20) 예쁘게도 생겼다.
 (21) 당신, 신호등이 보이지도 않소?

C. 「부사격 助詞+도」

- (22) 본인보다도 유족이 문제이다.
 23) 백조와도 같다는 느낌이다.

위의 문장들에서, ‘도’被接語에 자매항목이 상정된다거나 極性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2)의 경우도, 실제로 죽은 사람과 유족을 비교해 보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3. 結 論

國語 特殊助詞 ‘도’는 文章의 여러가지 構造에 따른 機能의 差異로서 여러가지 意味를 갖는다. 특수조사 ‘도’는 基本的 意味로서 ‘亦同’의

의미기능을 가지며, 被接語의 意味特性, 主部—述部の 呼應관계, 接續에 있어서의 앞 뒤 conjunct 사이의 論理관계 등의 여러 環境的 要因에 따라 ‘極端提示’, ‘讓步’ 등의 關係的 意味들을 갖는다. 논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助詞 ‘도’는 基本的 意味로 姊妹項目이 想定되는 ‘亦同’의 의미기능을 갖는다.

2. ‘도’의 亦同의 의미기능이 확대되어 被接語의 意味資質에 極性이 인정될 때 ‘極端提示’의 기능을 할 수 있다.

3. ‘도’는 肯定文脈에서는 否定極語를, 否定文脈에서는 肯定極語를 形成하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 이때, ‘도’는 ‘讓步’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接續에서, 어떤 접속語尾에 ‘도’가 연결될 때 양보의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면서, —고서, —어서, —는데’ 등 時間的 羅列形語尾 등으로 분류되는 語尾들에 ‘도’가 연결될 때 그러하다. 이 경우의 접속에서 ‘도’는 conjunct 사이의 論理 關係가 逆理일 때에만 쓰일 수 있다.

4. 이상의 의미기능 이외에 ‘도’가 가진 強調기능은 ‘도’에만 特有한 기능이 아니므로 副次的인 것으로 본다.

參 考 文 獻

- 高永根(1975), “現代國語의 語末語尾에 대한 構造的 研究”, 응용언어학 7-..
 _____(1976), “特殊助詞의 意味分析”, 문법연구 3.
 金昇坤(1972), “國語 助詞의 職能考”, 국어국문학 58—60(합병호).
 김영희(1974), “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문법연구 1.
 金鎰炳(1982), “助詞 ‘도’의 用法과 意味”, 국어교육 41.
 申昌淳(1975), “國語助詞의 研究(I)”, 국어국문학 67.
 _____(1976), “國語助詞의 研究(II)”, 국어국문학 71.
 梁鎭錫(1972), “한국어의 접속화”, 어학연구 8-2.
 李根鏞(1982), “國語特殊助詞研究”, 國民大 碩士學位論文.

- 李起東(1977), “對照·讓步의 接續語尾의 의미연구”, 어학연구 13-2.
- 李翊燮·任洪彬(1983), 國語文法論, 學研社,
- 李桓默(1977), “국어의 極語와 話用上의 假定”, 어학연구 13-2.
- _____(1982), “국어형성토씨 ‘도’”, 한글 176.
- 蔡 琬(1977), “現代國語 特殊助詞의 研究”, 국어연구 39.
- 최현배(1971), 우리말본(네번째고침), 정음사.
- 許 雄(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洪思滿(1983), 國語特殊助詞論, 學文社.
- _____(1985), 國語語彙意味研究, 學文社.
- 洪允杓(1979), “國語의 助詞”, 언어 4-2.
- Ullmann, S. (1957), The Principles of Semantics, Glasgow-Oxford.
- Yang In-Seok (1973), Semantics of Delimiter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9-2.